

# 전남도, 1773억원 들여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 환경정비 등 5만514명 일자리 제공 재능 활용 신규 일자리 발굴 추진 소득보장에 소득·어울림 사회참여

전남도는 올해 1773억원을 투입해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와 소득 지원을 위해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3754명 늘어난 5만51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이달부터 22개 시·군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 유형별 참여 인원은 지

역 환경정비 등 공익활동형 일자리가 4만5850명(90%)으로 가장 많고, 복지시설 등 업무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2404명(5%), 식품 제조·판매 등 시장형 일자리가 1810명(4%), 민간 취업 연계 지원을 위한 취업알선형이 450명(1%)이다.

특히 올해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강화하고, 시니어금융지원, 승강기정비구축지원, 공공행정업무지원, 시설방역지원 등 어르신의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신규 일자리도 발굴해 추진한다. 노인일자리 기준은 월

30시간 활동 시 27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희망자에 한해 예산범위에서 활동시간을 월 최대 42시간까지 확대해 37만8000원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다.

또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학교, 복지시설 등 일자리 수요저 추고(휴관)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우면 주변 청소, 방역활동 지원 등 비대면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 추진함으로써 어르신의 소득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소규모 매장을 운영하는 시장형사업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설보강, 장비구입, 인차보급 등을 지원하는 초기투자사업을 2019년

부터 시·군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5개소를 선정해 개소당 30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경로당 공동작업장을 운영해 매주 만들기, 통발 제작, 농산물 공동생산 등 33개 사업을 추진한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여가생활을 즐기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르신의 소득 보충뿐 아니라 소통과 어울림의 사회 참여 의미가 있다"며 "코로나19에 취약한 어르신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 안전하게 일자리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한파 피해 농작물 복구비 63억 긴급 지급

전남도는 지난 1월 발생한 한파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피해복구비 63억원을 긴급 지급한다.

이번 복구비는 지난 1월 초 북극 한파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배추, 시실고추, 시실감자 등 농작물 2240ha에 대해 전남도가 농식품부에 지원을 건의해 반영했다. 농약대와 대파대를 중점 지원한다. 지원단가는 품목에 따라 다르다. 피해가 가장 많은 배추는 1ha 기준으로 농약대는 200만원, 대파대는 250만원이다.

농가의 피해 규모와 정도에 따라 복구비 지원과는 별도로 이자 감면과 상환 연기 37억원, 재해 경영자금 13억원도 용자 지원한다. 소영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신속한 지원을 통해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농업재해에 대한 신속한 피해복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도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자, 녹차, 무화과 등 피해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농작물에 대해서도 작물에 따라 4월 말까지 피해 정밀조사를 한 후 지원계획이 확정되는대로 지원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광주 주민자치협의회 출범

이용섭 광주시장이 16일 오후 광산구 수안동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2021 광주 주민자치협의회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떡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 광주시, 2019년 사업체 증가율 광역시 1위

### 운수·창고, 보건 서비스업 급증 12만 3706개 업체 63만명 증가

광주시의 지난해 사업체 증가율이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에서 업체와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산업 분야는 각각 운수·창고,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광주시가 발표한 2019년 기준 사업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 사업체는 모두 12만 3706개로 전국 3.0%, 종사자는 63만 1876명으로 2.8%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사업체는 3.4%(4089개), 종사자는 2.5%(1만 5611명) 늘어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증

가율을 보였다. 광역시 평균 증가율은 사업체 1.6%, 종사자 1.7%였다.

사업체가 1000개 이상인 산업 분야에서는 운수·창고업이 전년보다 15.7%(1534개) 증가했으며 부동산업 8.3%(426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8%(252개) 등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종사자는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7.5%(5136명) 늘어 가장 증가 폭이 컸으며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0%(1349명), 숙박 및 음식점업 5.3%(3245명) 증가했다.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은 태양력 발전업체가 급증하면서 전년보다 사업체 57.3%(118개), 종사자 20.0%(278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다음달 완공...지원 대책 마련 분주

### 공정률 95.1%...9월부터 본격 양산

최초의 지역 상생형 일자리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자동차 생산 공장이 다음 달 완공된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GGM 공장 건립 공정률은 현재 95.1%, 설비 설치율은 99.4%를 기록하고 있다. 공장은 다음 달 중 준공되면 시험 생산을 거쳐 9월부터 본격적으로 완성차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를 상징하는 기업인 만큼 일정에 맞춰 공동 복지 프로그램, 지원 사업들을 준비할 방침이다. 노동자 등의 접근성을 높여주고 시내버스 노선 조정, 통근버스 운행 등 교통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직원 채용 일정에 따라 제때 주거비 지원금을 지급하고 상생형 지역 일자리 근로자 전용 주거단지 조성에도 힘을 기울인다.

광주시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판매 지원을 위해 취·등록세 면제 혜택 연장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경차 구매 시 차량 가격의 1250만원까지는 면제, 초과 금액의 4%를 과세하는 취·등록세 혜택이 연말에 종료되기 때문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면제 범위 확대, 기간 연장을 기재부, 행안부, 산업부 등 중앙 부처에 건의하고 영세 영업자에 대한 구매 보조금, 유류세 환급 지원 확대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라벨 없는 빙여울수 생산 분리수거 번거로움 없애 광주시, 다음달부터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다음달부터 라벨을 제거한 무색투명한 페트병에 담긴 빙여울수를 생산·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라벨 없는 빙여울수는 페트병을 배출할 때 라벨을 분리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1회용 플라스틱 감축이라는 정부의 재활용 분리수거정책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라벨 없는 빙여울수는 1800ml 10만병을 생산할 예정이며, 350ml는 생산 계획이 없다.

광주시는 2007년부터 상표표 라벨이 부착된 병입 수돗물 빙여울수를 생산해 비상급수용으로 사용하거나 각종 사회복지시설, 행사 등에 지원해 왔다.

2019년 4월 '광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는 1800ml 빙여울수를 비상급수용으로만 공급하고, 생산량도 2018년 70만병, 2019년 24만병, 지난해 9만6000병으로 대폭 감소시켰다.

염방열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라벨 없는 빙여울수 공급으로 1회용 플라스틱 배출 감량을 공공부문이 솔선하고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 광주 구현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취업희망 여성 200명 모집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서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취업희망 여성을 대상으로 집단상담프로그램 '취업입문스쿨'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지원 사업인 '취업입문스쿨'은 결혼·임신·출산·육아 등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 경험이 없는 여성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구직기술 향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달부터 11월까지 총 16기 200명(1기당 15명 내외)을 모집하며, 일일 4시간 주3~5회 전문 직업상담사가 진행한다.

교육생들은 ▲나의 취업동기, 직업선택도 검사, 여성 고용환경의 변화 알기 등 진로 탐색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모의면접, 취업사이트 활용 등 효과적인 취업준비 과정 ▲미래계급 세우기 등 단계별 직업·진로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수료자에게는 수료증 발급, 이력서 사진 무료촬영, 실업급여 대상자 구직활동 2회가 인정된다. 또 서구새일센터를 통해 1대1 취업상담과 채용정보 제공, 취업알선, 동행면접, 새일여성인턴십 연계, 직장적응교육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취업입문스쿨 참여는 일가정양립지원본부 홈페이지를 참고하고, 서구새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제순자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취업입문스쿨이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의 구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행정안전부  
표창장 수상

창립  
40th

# 힘이 되는 든든한 금융파트너

최고 **70%**  
대출한도  
아파트 분양자금

최고 **80%**  
대출한도  
부동산 담보대출

최고 **2,000**만원  
(근로자 최고 1,500만원)  
햇살론



## MG 대광새마을금고

공과금 자동이체(기본 선물 증정) / 카드 체크기 무상 설치  
각종 공제(암상해 화재 보험) 취급 / 문화센터 운영(탁구·요가·노래)

| 본점 | 062)222-5851 | 서남지점 | 062)227-1532 | 자산지점 | 062)222-1431

★ 정책 및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한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